

알뜰폰 사업 위기...이탈자 한달새 5배

알뜰폰업계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기대했던 도매대가 인하 폭이 애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데다 25% 요금할인 후 폭풍까지 겹치며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마저 알뜰폰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연쇄 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30일 서비스 종료...가입자 이탈에 알뜰폰업계 '노심초사'=홈플러스는 이달 30일부터 알뜰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KT와 LG유플러스 망을 빌려 '플러스 모바일'이라는 브랜드로 알뜰폰 사업을 해왔는데 2015년 6월부터 알뜰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다른내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로의 이동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알뜰폰 가입자 수는 4000여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마친 상황이다.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 현상은 한층 심해지고 있다.

9월에는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옮겨간 고객이 유입 고객보다 366명 많았고, 10월에는 1648명으로 격차가 더욱 커졌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유입된 고객이 이탈 고객보다 2만명 이상 많았지만 2분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7월에는 처음으로 이탈 고객이 유

망 도매대가 인하폭 적고 통신요금 할인 후폭풍 4000여명 가입 홈플러스도 손떼...연쇄폐업 우려



입 고객을 추월했다. 8월 잠시 유입 고객이 앞섰지만 9월부터 다시 역전됐다.

◇도매대가 인하 미진, 요금할인 확대가 '직격탄'=이러한 알뜰폰 고객 감소는 9월 들어 25% 요금할인과 갤럭시노트8 등 프리미엄폰의 잇단 출시 등 약재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도매대가 인하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알뜰폰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협상 결과 양측은 LTE 정액요금제(데이터 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

을 전년 대비 평균 7.2%포인트 인하했다. 애초 목표치 10%포인트보다 낮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 효과를 연간 3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통사로서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연구원은 "알뜰폰 전체 가입자 증가로 올해 망 도매대가 절대 규모의 감소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뜰폰업계는 실망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이용자가 빠르게 느끼는 고가 요금제에서의 인하 폭이 적다는 점을 우려한다. 데이터 11GB 이상요금제의 경우 인하율은 1.3~3.3%포인트에 불과했다.

더욱이 예년에는 기본료를 빼고 인하율을 산정했지만, 올해는 기본료 폐지분을 인하율에 포함해 실제 인하율은 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월 수천원의 기본료 폐지분을 제외하면 고가 요금제의 도매대가는 거의 인하되지 않았다"라며 "2G와 3G에 적용되는 단위당 종량도매대가 인하폭도 예년과 비슷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알뜰폰업계 6년간 누적 손실 3300억...'폐업설 확산'=알뜰폰은 2011년 출범 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적 영업 손실 규모는 3309억원에 달한다.

업계의 경영난은 고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지모바일은 최근 경영난으로 고객센터 통화 연결이 원활치 못해 이용자의 원성을 샀다.

SK텔레콤 등 대형 업체들도 브랜드 이름을 개편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보편요금제마저 도입되면 대다수 중소업체는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의 폐업설이 돌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사회적 논의(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광주지역 시청자들.

"영상 만들며 진로 찾았어요"

광주 영상동아리 '동그라미' 시청자미디어재단 특별상

광주시청자센터 7관왕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는 광주지역 시청자들이 '2017시청자미디어대상'에서, 특별상을 포함 영상작품과 라디오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7개 부문에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3년째를 맞은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창의적인 방송작품의 제작자와 시청자 권익증진 및 미디어교육 발전 공로자에 대한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13일 치러진 '2017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전국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수된 총 792편이 시청자제작 방송프로그램이 출품됐고, 국무총리상인 대상 1편을 비롯해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7편 등 총 23편의 팀(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창의도전 TV부문 우수

상'에 김병국, 박종익씨가 제작한 '부족한 만큼 든든한 그대의 손', '창의도전 라디오 우수상'에 대학연계 미디어교육 수료자 '돌보기', '창의도전 라디오 부문 장려상'에 대학연계 미디어교육 수료자 '배추사회'와 '우리의 거짓말', 참여방송 라디오부문 우수상에 '달아달아 밝은달아', '참여방송 라디오 부문 장려상'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도로로 생활도로', '시청자권익증진 특별상'에 '광주청소년 영상제작단 동그라미' 등이다.

특히 올해 두드러진 성과는 지난 2012년 창단한 '청소년영상제작단 동그라미'의 시청자권익증진 특별상 수상이다. '청소년영상제작단 동그라미'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청소년 영상동아리로서 센터의 '청소년미디어스쿨'과 '제작교육'을 통해 5년간 134편의 작품을 제작했다. 작품들은 각종 공모전에 출품되고, 지상파 등에 상영되면서 출품생 70%가 미디어분야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문의 062-650-0332.

수상작은 '창의도전 TV부문 우수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상상 속 자동차 타고 실생활 전파 체험...광주과학관 행사 다채

23일~25일 전파엑스포

연말 '키즈 모터쇼' 개최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은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2017 전파EXPO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과학관은 현대자동차와 협력을 통해 전시·교육용 차량을 기증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증식은 15일 오전 국립광주과학관 구체형 영상관인 '스페이스 360'앞에서 열렸다.

국립광주과학관과 현대자동차는 올해 12월 말부터 국립광주과학관 기획전시실 2에서 겨울방학 특별전으로 '제 2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그린 자동차를 실제 자동차 모형으로 제작해 관람객이 직접 타보고, 상상 자동차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첨단 전시물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기 차와 수소 차



15일 오전 광주과학관과 현대자동차는 '키즈 모터쇼' 전시용 차량 기증식을 열었다.

의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콘텐츠와 기증 차량에 첨단 전시기법을 더해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아트와 인터랙티브, VR 체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어린이 상상력을 담은 자동차 작품 1만 5021건을 접수받았다. 이중 백과사전 자동차, 산소 자동차, 몽개몽개 아쿠아 자

동차, 낙엽 청소 자동차, 젤리 튜브 자동차, 내 맘대로 블록 자동차, 방귀 연료 자동차 등 7점의 상상 자동차와 스토리가 실물자동차로 제작돼 전시된다.

과학관은 또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세상을 연결해 주는 전파'를 주제로 한 '2017 전파EXPO'를 개최한다.

과학관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광주과학기

술원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20개 기관이 함께한다.

전파EXPO는 청소년들에게 전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파에 대한 이해와 탐구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전파는 IT 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두드러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으로서 활용범위와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전파EXPO는 전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42개의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VR부터 라디오 방송 체험까지 전파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프로그램부터 평상시에는 접할 수 없던 아쿠아 무신 특별강습까지 다양한 단계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전파의 기초와 응용에 대한 강연이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문의 062-960-617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석환 인터넷진흥원 신임 원장 취임

김석환(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지난 13일 빛가람 혁신도시 본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원장은 5대 원장으로 임기는 오는 2020년 11월 12일까지 3년간이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정당한 일자리 창출 등 국정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산 민영방송 KNN 대표이사, PSB부산방송 편성국장·보도국장,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방송분야 미디어 특보단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